

격려사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고운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말사 주지스님, 그리고 오늘 민족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오늘 결의대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나태함에 대해 서로 탁마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왜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의 한국불교를 위기로 만든 것은 정부도, 여당도 아닌 총무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모이신 스님들, 그리고 이천만 불자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적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특정종교에 편중되는 인사문제를 비롯하여 정부기관과 고위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도 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종교편향 문제도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동안 우리 불교가 사회와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우리 내부의 문제에만 매달려 왔던 것이 종교편향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신년 담화문을 통해 한국불교가 오늘날 처한 현실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허물에서 기인함을 깊이 자각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불교를 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성과 쇄신을 통해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 이후 한국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결사’의 정신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전개할 것을 사부대중 여러분께 제안하였습니다.

지눌스님께서서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성과 쇄신 결사 또한 바로 우리가 밭 딛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는 승가로서 본분과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깨달음을 향해 치열한 정진을 하고 있는지, 중생구제, 전법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민족전통 문화의 전승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불교의 근본을 바꾸는 의지이자, 노력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막거나 예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라 함은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기득권까지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기득권처럼 자리 잡은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성찰하고,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쇄신(刷新)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결사(結社)의 정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여당 인사에 대한 접촉과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불교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안팎에서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관계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종단의 지침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단의 이러한 지침 시달 이후 예산 몇 푼주면 달랠 수 있는 집단으로 여겼던 불교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을 바로잡는데 효과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일부 혼선이 있었기는 했지만 내부 분열이나 혼란 없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종단이나 사찰의 종교행사에 정치인사의 참석을 당연시하고 인사

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찰의 현안 문제를 풀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부관계자들을 만나야 하는 스님의 모습이 과연 승가의 본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단의 접촉금지 지침은 지난날의 관행을 바로잡자는 자성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종단이 접촉금지 지침을 시달한 분명한 이유는 ‘정부, 여당의 천박한 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나 여당의 천박한 문화인식이 바뀌었냐?’가 바로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한지 4개월여가 다 되어가지만 그 어디에서도 정부나 여당의 천박한 문화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의 접촉금지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종도들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오랜 전통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와 전통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가깝게는 60여년 전 봉암사 결사와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서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2011)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